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 시나가와 용수

### 시나가와 용수 정비

에도 시대의 시나가와구는 농촌이 대부분이었으나,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 용수 정비를 요청하여 1667년에 공사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공사 비용은 막부가 부담하고, 이미 정비된 다마가와 상수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수로를 굴착할 토지의 소유주는 막부, 무사, 사원 등 다양했기 때문에 공사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1669년, 관계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나가와 용수가 완공되었습니다. 지금의 무사시노시에서부터 시작하여 미타카시·조후시·세타가야구·메구로구를 거쳐 시나가와로 흐르는 용수의 길이는 약 30km에 달했고, 약 140헥타르의 토지를 적셨습니다. 용수 관리를 위해 마을들이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 시나가와 용수의 영향

시나가와 용수가 완공됨으로써 빗물과



▲과거 시나가와 용수가 메구로가와 강 방면과 다치아이가와 강 방면으로 분기된 지점에 서 있는 불당



▲시나가와 용수의 역사를 새긴 석비(가시마 신사 경내) 1932년 건립

지표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에 의존하던

상황이 개선되어, 물 부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나가와 용수가 혜택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수 이용은 수확량

증감과 직결되기에 물을 훔치는 행위나 수로

파괴 등 물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부는 1691년에 시나가와 용수를

대대적으로 수리함과 아울러 마을들에 용수

관리 규칙을 제시하여 분쟁을 막고자 했으나,

그 후에도 다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나가와 용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노동력 제공은 마을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시나가와 용수

메이지 시대가 되어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자, 시나가와 용수는 공업 용수와 소방 용수로 이용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늘자, 하수를 흘려 보내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1941년의 시나가와 용수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에는 「수로에 오수가 고여 거품이 일고, 악취가 풍긴다.」는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후 시나가와 용수 위에 덮개를 씌웠고, 대부분이 지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시나가와 용수에 덮개를 씌우는



▲같은 지점 공사 완료 후(1954년)